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6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세션, 형식 비평적 접근과 찬송가 모티브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소서.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진리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확실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초점은 주로 시편의 신학이나 시편의 영적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 자체에 적합한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편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역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사물에 대한 넓은 관점을 제시한 다음 그것을 한두 편의 시편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본문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역사적 접근을 살펴보니 주체가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은 원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왕 안에 모이는 왕실 찬송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과 자신을 대표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은유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성전은 영적인 성전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왕과 지상 성전의 재판실과 재판실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른편에 계신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은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일종의 그림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보았고 그는 더 큰 왕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이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들에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29,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본 다음, 시편 4편을 좀 더 좁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시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시는 어떻게 읽나요? 시편에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어떻게 읽나요? 우리는 모든 시에는 특정한 형태의 평행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이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다시 말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재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된 진술이고 그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당신이 그 줄을 읽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볼 때, 당신은 또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자르고 시인이 생각한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시인의 마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석에 있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그 세계의 문학과 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잘했던 재능 있는 시인 데이비드. 이제 우리는 형식 비판적 접근 방식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에는 제가 원래 두 번의 강의로 할당된 것을 접근 방식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범위를 좁혀 특정 시편을 살펴보고

더 자세히, 더 세련되게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코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 비평적 접근 방식에 있으며 50페이지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서론의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형식, 즉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즉 최소한 다섯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찬양시편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편에서 우리는 신학을 삽시간에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이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 그들의 마음에 주신 것을 증언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 찬송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는 모세의 입술이나 선지자의 입술이 아닌, 이제 왕과 백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얻는 계시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찬송이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폭넓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자료가 많고 그 자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 강의는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강의일 수 있지만,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몇 편에만 머무르면 전체 책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물의 전체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더 좁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편에서는 형식 비평적 접근 방식으로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찬송가인지, 애가인지, 신뢰의 노래인지, 교훈의 노래인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시편인지에 따라 분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통해 형식비평 이전의 시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럼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서론으로 다음 조사는 무엇일까요? 학문적 접근 방식에 대한 조사. 글쎄요, 그것은 로마 숫자 I입니다. 그런 다음 특히 55페이지의 찬양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로마 숫자 II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내가 가진 거예요. 학문적 접근 방식에서 우리는 비평을 형성하기 이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 첨자에 의존하고 그 날짜를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통해 왕의 개념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문학에서는 그게 정상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문학에서는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형식 중요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학적 분석적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왜 다윗의 저자임을 거부합니까?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회의적인가? 학계가 어디에 있는지, 왜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위 첨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지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학적 분석적 접근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미 전제와 전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은 이성을 계시 위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계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있는 당신의 이유를 신뢰합니다. 이성적으로 당신은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회의론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신의 개입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 방법에는 진정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단지 과학적인 방법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과학적 조사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영을 볼 수 없는 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물질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의주의는 오경에서 시작되어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학자와 함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1869년, 1870년경에 그는 서문에서 오경까지라는 학계를 막 무너뜨린 대작을 내놓았습니다. 오경이 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문학적 기준에 따라 문서를 분리했다는 의혹이나 증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문학적 분석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들은 문헌과 문학적 분석을 통해 문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을 야훼(Yahweh)라고 부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독일어에는 Y가 없고 J가 있습니다. 따라서 Yahweh의 철자를 J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학 평론가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독일어에 속한 문서를 분리했습니다. 모든 과학적 작업이 독일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의 셈어가 독일어라는 것은 우리 분야에서는 일종의 농담입니다. 그들은 단지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매우 분석적이고 매우 정확하며 과학적입니다. 음, 어쨌든, 그것은 J 문서입니다. 다른 문서에서는 신에 대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엘로힘(Elohim)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학적 기준, 어휘 사용 및 기타 단어에 따라 텍스트를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문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엘로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를 E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을 사용한 또 다른 문서는 그 내용이 대부분 레위기와 제사장 자료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제사장 문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세 개의 문서가 생겼습니다.

당신에게는 야훼 문서가 있고, 엘로힘 문서가 있고, 제사장 문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J 문서, E 문서, P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D 문서라고 불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이제 JEDP 이론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먼저였는가였습니다. 흥미롭군.

왜 이것이 매우 그럴듯한 이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칭찬할 게 많다. 예를 들어, J 문서에서 사람들은 언제부터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J 문서에서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는데, 셋이 태어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J 문서에 따르면 야훼의 이름은 에노스(Enosh)로 시작했으며 이는 E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E 문서에서 그들은 이미 출애굽기 3장을 분리했습니다. 모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E 문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야훼라는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E 문서에서 야훼 신의 이름으로 신에 대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 문서, 즉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나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걸로 무엇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J 문서에는 당시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E 문서에 따르면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는 마치 그가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나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p 문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원을 알려주는 뚜렷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그럴듯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모순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 가설의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벨하우젠의 작업의 관석이었고 그는 그 순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최초의 문서였다는 것은 J였습니다. 다음 문서는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J.의 연대를 약 950년경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잡았습니다. 그는 E 문서의 연대를 85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D 문서의 날짜를 620년 요시야의 개혁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모세에게 귀속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율법책을 성전에서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명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의사그래프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에 산당을 없애는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한 개혁이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산당들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고고학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이전에도 산당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D 문서의 연대는 학문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기원전 620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p 문서의 날짜는 유배 당시 또는 유배 이후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성경 전체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때 이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했던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자료 등 제사장의 자료가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그것을 썼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전체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모세가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면 왜 다윗을 신뢰합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완전히 별개의 신학교 과정과 입문 과정으로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가르칠 때 사과 없이 바로 벨하우젠을 발표한 이유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 성경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주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주장은 신이 결코 개입하지 않으며 실제 예언도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문서는 실제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특히 어떤 지파들이 있을 것인지에 따라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시대착오적이어야 하며,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과 그 유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설명하나요? 제가 변론을 했을 때, 구두 변론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보수적이며 성경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나는 보수적인 대답을 알았지만 그것이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다큐멘터리 가설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의존해야 한다면, 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불가지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유한한 마음은 결코 무한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 모든 것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읽은 것은 약 30년 후였지만, 30년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호함을 안고 살아요. 우리 모두는 모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1995년에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공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작가는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인식 공식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즉, 나는 나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힘을 결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 공식을 얻으면 그것이 출애굽기와 구약성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왕이 산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왕의 왕관이 먼지 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는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전체 클러스터를 얻습니다.

너희가 이 예언이 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인식 공식이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관한 한 영원한 증거는 군주제보다 우선합니다.

그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역 중앙 성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명기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입니다.

나는 다윗의 저자에 대한 회의론과 시편에 대한 태도, 그리고 왜 학계가 위 첨자를 거부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Gunkel이 이러한 학문적 사고 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Gunkel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 비평적 접근 방식을 얻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왜 매우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형식 비평적 접근 방식을 시작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비판의 토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신명기의 공식이 되고 있는 한, 나는 당신이 맥콘빌의 신명기에 대한 주석을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폴로 시리즈 중 최고의 해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의 연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McConville을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명기를 율법서와 동일시했습니다.

나는 신명기가 유배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그 책이에요.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서의 역사입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쓴 것이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 부분에서 모세의 사망 기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책을 기록하여 성막 궤 옆에 두었습니다. 모세가 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나의 심판 가운데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구절이 59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고 지나친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썼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토론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배경이에요.

일화의 연대에 관해서는, 제가 댈러스에서 가르칠 때, 남감리교 하이랜드 침례교회, 남감리교회, 남감리교 대학에 소속된 남감리교회의 한 학급 회장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수업은 매우 자유주의적이었다. 반 회장은 내가 복음주의자라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당신이 오셔서 우리 반에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그렇게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성경을 보아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모두가 올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서 가르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성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르치기로 합의했지만,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글쎄,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수업을 준비했고 모두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좋은 시각적 개체 수업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나 떠날 거야. 그런데 그는 수업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관리인이 오래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리인과 관리인을 구했습니다. 제 생각엔 지하실이 3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하 3층과 뒷벽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오래된 퓨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화였습니다. 므낫세의 통치와 그의 배도 기간 동안 율법책이 성전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내 말에 대해 그곳에 있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일화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관점에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비판이 형성되는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조금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별도의 코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Gunkei과 같은 남자를 얻는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Wellhausen 접근 방식을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벨하우젠식 접근 방식이 이 모든 기독교 세미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벨하우젠 자신도 루터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가서 가르칠 예정이다. 그러자 신학자들은 벨하우젠을 집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죽였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체 문제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주의가 시작된 지 약 10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은 바와 같이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 벨하우젠으로서의 배경이 누구인지로 나누어 본 문학적 분석적 접근이 그 시작이다.

그 다음에는 브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장로교 학자였으며 나중에는 개신교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견해 때문에 장로교인들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TK Cheney는 영국의 신이었고 Bernard Duhem은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입했고, 이 새로운 접근법을 전파했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벨하우젠 이전의 거의 모든 학술 문헌은 더욱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1870년경부터 벨하우젠 시대, 즉 1920년 궁켈(Gunkel)까지 모든 학술 문헌은 원본 문서에 대한 벨하우젠의 관점 등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920년부터 여기서 중요한 학자는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1904년에 첫 작품을 썼다.

그는 1920년이나 1924년에 논평을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 그의 대규모 작품은 'the'라고 불리며, 모두 독일 작품입니다. 어쨌든 저는 시편 소개라던가 이스라엘의 종교 문헌을 읽고 싶습니다.

그는 1932년에 사망했고 그의 학생인 Joachim Beurig는 1933년에 사후에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거대하고 일반적으로 게르만풍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세부 사항이고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것은 1998년이 되어서야 번역되었습니다. 머서 프레스(Mercer Press)에서 구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Wellhausen이 조지아주 메이컨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Mercer Press는 이를 번역본으로 출판했습니다.

550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구입할 수 있지만 비용은 그 정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무료로 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스캔했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캔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와서 전자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캔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식비평가의 방식은 무엇일까? 글썬요, 우선 그는 역사적 비평, 예를 들어 회의론, 일관성, 비유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 전제들의 기초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첨자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편 이외의 모든 시편이나 찬송에는 윗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첨자가 시편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출애굽기 15장, 사사기 5장, 사무엘하 22장 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가정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TA와 IV 학습 성경에서도 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NIV 연구용 성경은 훌륭합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이지만 나만큼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가 역사적 맥락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문법적-역사적 방법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빗을 버렸습니다. 역사적 개념은 무엇인가? 이 자료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David가 없고 위 첨자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태비평을 통해 궁켈이 시편의 유래가 된 역사적 맥락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첨자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과학적 모형론에 의해 그들은 그 책, 대부분의 자료, 모든 자료의 연대를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건축된 두 번째 성전으로 연대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 기초를 전제로 하는 고급 과정입니다. 좋아요.

따라서 그들이 연대를 측정한 방식은 소위 과학적 유형론, 즉 언어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히브리어는 무엇이었나요? 후기 히브리어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언어의 진화뿐만 아니라 종교의 진화도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니미즘에서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에 이르는 일종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종교 발전 철학에 따라 시편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끝에서는 매우 늦을 것입니다. 그것이 데이트를 하는 이유였다.

물론 나의 비판적 평가는 기본적인 역사비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동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성경 자체와 논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과학 언어 기반을 무너뜨린 일은 1929년 1940년에 출판된 우가리트 텍스트의 발견입니다. 거기에 라스 샴라에서 온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의 지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기 저쪽에 키프로스 섬인 키프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는 깃털 모양입니다. 깃털 끝부분을 잡고 바로 해안으로 가보면 우가리트(Ugarit), 현대의 라스샴라(Ras Shamra)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정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은 가나안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의 신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에 대한 시와 찬양입니다. 히브리 시편처럼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시의 모든 것이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더 이상 언어학적으로 그것을 후기 사원 시대로 연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것이 더 빠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의 진화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의문의 여지가 생겼으며 그다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비판이다. 나는 그것이 시편 해석에도 파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문학적 분석적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주석적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석적인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신학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도 별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간다.

글쎄요, 그러면 형식 비판적 접근 방식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나는 문학적 분석적 접근 방식과 이에 대한 나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식 비판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1900년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작이 190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90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학술 문헌은 양식 비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배경 설명을 통해 논평을 시작할 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문학입니까? 이것은 어떤 찬송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시편과 다양한 찬송가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접근법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찬송가, 청원, 지시 등으로 아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교회 역사를 통틀어 일부 주석가들은 시편이 시편 51편과 같은 참회 시편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에서 고통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서로 다른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향의하다, 괴로워하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시편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큰 변화는 독일 학자 궁켈(Gunkel)이 형식비평의 위대한 옹호자라는 점에서 찾아왔다. 그는 형식비평을 과학적으로 다듬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의 참고문헌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문단 중간, 1933년 각주 33의 작업 이후 그는 문학적 분석적 접근의 결론을 수용했지만 이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그는 벨하우젠의 영향을 받은 대학 시절과 나이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식비평을 통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가 기지를 떠난 곳이고 여기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그 형태가 다윗이 아니라 적어도 포로 이전 시대에 최초의 성전 시대에 유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형태를 모방한 현존하는 시편은 제2성전 시대에 속한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그의 나이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모두 제2의 사찰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것이 첫 번째 사원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형식은 첫 번째 성전에서 유래했지만 시편 자체는 두 번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는 정치적 올바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성전을 모방했으며 그는 모든 시편과 마찬가지로 그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둘로 접히는 무대 배경.

그의 첫 번째 방법은 소위 말하는 것이었고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셈족 언어는 독일어인 모든 것이 Sitz im Leben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유래된 삶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지만 그 잠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글쎄, 그것들은 뜰에서 시작되었거나 집에서 시작되었지만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시작된 삶의 환경을 얻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글쎄요, 그 중 일부는 성전에서 유래했고, 다른 시편은 개인적인 기도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시작된 삶의 배경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편이 작용했던 삶의 배경인 Sitz im Leben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역사적 접근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제가 시편 4편에서 한 일은 역사적 맥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다윗과 달리 그것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질문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된 역사적 상황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형식은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어디에 배포되나요? 어디로 유통됐나요? 전통은 어디에서 전해졌나요? 그리고 그것은 전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더 구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구두로 시작되었고, 기도가 구두로 전해졌습니다.

인생의 배경인 Sitz im Leben 을 설정하려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Legatum이라고합니다. 이것은 장르나 형식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편에는 사람과 같은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특정한 어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티프와 다른 율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분류한다고 말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어, 분위기, 아이디어, 모티프 및 기타 문학적 기준이라는 공통 보물에 따라 시편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시편과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고대 근동 찬송과의 유사점으로부터 뒷받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문은 이제 고고학으로 인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수메르와 아카드 문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메르에서 온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온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과의 이러한 비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처분이었습니다.

1930년에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우가리트 텍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출판될 예정이다. 그들은 단지 그 자료가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사이의 어느 곳에서나 연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른 것이라는 점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료가 누군가가 실제로 꿈꾸던 것보다 훨씬 이전의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2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적인 단어, 모티프, 아이디어, 분위기 등을 살펴본 후 시편의 다섯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양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실 시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찬양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왕이신 찬송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인 애도, 공동 애도, 추수감사절 시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요 형식, 찬양의 찬송, 왕의 시편입니다. 이제 그는 왕의 시편 10편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편들이 왕을 언급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시편 2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음이니이다. 우리는 시편 20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21편에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 이야기로, 왕의 영광과 그에게 데려온 이방인 신부의 아름다움에 관해 노래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혼이군요.

시편 72편은 실제로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다시 왕에 관한 것입니다. 왕에 관한 시편 2편이 서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편집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2편은 왕에 관한 제2권의 끝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우주적 통치와 모든 역사의 시간적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입니다.

89, 왕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1이 더 어려운데, 루터의 용어로는 101이 왕자를 거울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리더십과 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110편이 그 유명한 시편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니라 그리고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라온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144편에서는 다시 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편의 왕실 시편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내가 한 일은 John Eaton과 함께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10편의 시편을 넘어 확장됩니다. 거기에는 운율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2, 20, 21, 45.

72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만들지만 초점을 왕에게 유지합니다. 이 시편 10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왕의 시편이 강점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궁켈이 처음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개인적인 애도를 가지고 있으며 Gunkel은 시편 91편, 신뢰의 노래와 같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에 시편 27편과 같은 신뢰의 시편을 포함시켰습니다. 천 명이 네 옆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앞드러지리라. 신뢰의 노래들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거나 가뭄처럼 쓰러질 때 공동의 애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시편이 있습니다. 와는 차이가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클라우스 베스터만(Klaus Westermann)의 작품입니다. 그는 찬송가와 감사의 찬양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구별해야 합니다.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은 찬송가를 갖고 있으며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챔피언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감사의 찬양의 노래는 탄식의 반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고, 당신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따라서 이들은 다섯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Sitz im Leben 에 대해 약간 부정적입니다. 저는 찬송가와 감사의 노래가 성전을 위해 작곡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도록 작곡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는 다윗의 시편이 다윗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더 긍정적인 점은 다윗의 노래가 개별적으로 유래되었을지라도 성전에서 사용되도록 음악감독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 생각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넷째, 저는 이것이 다소 추측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원래 환경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모든 다른 관점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자세합니다. 나는 Brueggemann과 Gottwald 및 다른 동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Gattung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이러한 별개의 유형에 속합니까? 나는 연대기 작성자가 이러한 세 가지 뚜렷한 유형이 있다는 Gunkel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역대상 16.4절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했어. 나는 고급 학생들을 위해 히브리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번역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레위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의 세 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Gunkel이 식별한 5가지 유형 중 3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Gunkel은 왕의 시편을 선정하는 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시편이 단지 이 10편의 시편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개 중 3개가 생겼습니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군켈에 익숙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말했다, 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연대기를 읽었고 거의 말 그대로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 연대기에서는 이미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여기서 NIV 번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에 ESV가 어떻게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께 앞에서 섬기는 봉사자로 임명하여 부르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주목하십시오.

NIV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청원하는 대신에 칭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에는 세 가지 종류의 찬양 시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lamnatzeah 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가? 그리고 원래 Glosses는 여기서 번역된 lamnatzeah 이고, extol은 시편 20편의 청원으로 번역되었으며, 위 첨자에는 lamnatzeah가 있고 NIV에는 다윗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16장 4절의 청원서를 번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공개찬양, 호돏 과 찬양, 할렐 입니다. 그리고 할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많이 다루고, 호돏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역대기에 따르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며,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시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세 가지가 있는데 그는 구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켈의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찬양 찬송이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로 돌아가서 찬양의 찬송. 왕실 시편은 기분에 따라 쓰여지지 않고 말로 쓰여집니다. 개인적인 애도와 공동의 애도가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개인 청원 대 공동 청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왕과 백성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왕의 개념을 다른 시편들에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종류의 애도와 탄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말 이해 했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도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분위기, 단어에 대한 그 자신의 분석을 통해 그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의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연대기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 필. 누군가가 찬양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의는 실제로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속합니다.

그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응, 내 생각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게 좋은 것 같아.

응.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대기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 나의 비판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Gunkel은 우리에게 세 번을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범주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지침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그런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훈 시편이 시편 1편과 같기 때문입니다. 간구도 찬양도 아닙니다.

당신을 시편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훈이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세 가지 유형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왕실

해석을 인식하지 못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구별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이 왕이고 우리 이다. 사람들 입니다. 나는 왕족이 별개의 유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주제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마이너 유형이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칭찬이다.

나는 그것이 별개의 유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이 독특한 유형의 시편임을 이해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시온의 시편은 뚜렷이 구별됩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나는 그것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양한 종류의 문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해석학적, 주석적, 문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페이지의 ball이라는 단어는 스포츠 페이지의 ball과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어떤 스포츠, 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peti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한 번도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시편에서 뿌띠 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의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잠언과 시편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매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려면 자신이 다루고 있는 문학이 어떤 종류인지 의식해야 합니다.

용어가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용어집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든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태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나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문헌을 산문이나 문자 그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문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희생제사를 말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거부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럼, 내 성경으로 가져가자. 시편 51편이 마지막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른쪽. 이것은 애도 시입니다. 애가편의 흔적이 다 있고 그가 있는 곳, 우리가 애가하는 곳,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찬양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찬양입니다. 14시부터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 혀는 당신이 올바른 질서를 세우신 당신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있어.

당신은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입니다.

그는 제사 제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은 전체 시편이며 뚜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코너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동물 희생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용서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 왔는데 그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어요. 지금은 큰 축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상한 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먹고 축하하는 큰 식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그거 가져오지 않을 거야.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말과 동물 희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그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로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나는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끝에서, 그가 용서받은 후에, 그리고 장차 19절에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제단에 그릇이 바쳐질 것입니다. 그분은 희생 제도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당신을 찬양하는 나의 간증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부적절해요.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지만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학술 문헌에서는 맥락을 벗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다윗이여, 이것이 이 제단의 진보된 신학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도를 거부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고마워요, 자기. 그래서 저는 5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해석학적, 주석적,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산문인지 시인지, 상징인지 문자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모티브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티프를 입력하는 것은 형식 비평 소개의 첫 번째 부분이지만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문학적 분석적 접근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양식 비평이 출현하는

맥락과 그것이 왜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부로 왔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찬양하는 데만 국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Westermann과 시편에 나오는 그의 찬양과 애도를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거나 기본적으로 독일어와 영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약성경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야생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고백한다는 뜻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적인 칭찬,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을 때 우리는 수요일 밤에 기도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간을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서로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노래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서로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가 이것의 다음 부분입니다. 두 가지 형식 후에는 찬송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서는 로마 숫자 3의 감사 찬송인 72페이지까지 감사 찬양의 노래를 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 15 개가 있습니다. 좋아요. 시작한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세 부분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이야기하고, 감사찬양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찬송가와 찬송가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찬송가의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나는 이것이 약간 불안하다. 마치 식물학자가 꽃을 찢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모두 끝내면 더 이상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시편을 모두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우리는 시편 자체의 아름다움과 향기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와 잎과 뿌리를 분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식물학자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실제로 꽃을 찢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냄새를 맡고 즐길 수 있도록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학자의 분석 단계에 있어요. 나는 항상 과학적으로 더 잘합니다.

분석하는 것을 더 잘 하지만, 음악을 즐긴다. 나는 일반적으로 너무 강장제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퍼포먼스에요. 이거 켜질 거야, 그거 어디야?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64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공연은 전례적 접근 방식을 참조하세요.

그래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55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마세요. 우선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신학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축하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64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내 개요가 틀렸어요.

나는 이 시점에서 깨달았고, 그것은 나에게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서는 시온의 노래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시온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D여야 합니다. 따라서 A는 모티브, B는 연주, C는 신학, D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E여야 하지만 F는 여기 72페이지 즉위 시편에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가로 하고 있는 일의 개요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것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두 가지 작은 유형의 찬양인 시온의 노래와 즉위 시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가는 곳엔 나와 함께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길을 잃은 걸까?
좋아요. 모티프, 요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찬양의 원인이
본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신학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찬양으로의 부르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종 찬양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편 117편을 보겠습니다.

단 두 구절이지만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모든 나라의 성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라. 왜? 원인은 바로 신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여호와와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다.
그것이 바로 그 정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이 나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시편입니다. 세 가지 모티브가 모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더 짧은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3편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33편 전체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전체 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이 과정의 위험은 시편 자체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분석을
얻었고 나는 시편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읽어보자.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합당한 일이니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 줄 비파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그에게 새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래된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바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출애굽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노래 옆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능숙하게 연주하고 기쁨을 외쳐보세요. 이제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옳도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신실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분은 바다의 물을 항아리에 모으십니다. 그는 깊은 곳을 창고에 두십니다. 시, 이미지, 비유적 언어가 시의 일부임을 주목하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존경하게 하여라. 그가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명령하시매 그것이 굳건히 섰느니라. 이제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시느니라.

그는 백성들의 뜻을 좌절시키나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마음의 뜻이 대대에 이르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 거민으로 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온 인류를 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처에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고려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왕도 군대의 규모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용사도 그의 큰 힘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덴의 말들은 그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희망합니다. 저희는 능히 구원하지 못하되 여호와와의 눈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도 살리시는도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뢰하므로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희망을 두는 것처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찬양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미약한 분석과 찢는 것보다 놀랍고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찬양으로의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1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좀 더 완벽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론은 찬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에서는 Gunkel과 함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것이 명령형 분위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59페이지에서 우리는 분위기가 열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미지근한 커피와 같아서 그는 그것을 입으로 뱉어낸다. 그는 열정을 원합니다. 그는 형식이 아닌 열정을 원합니다.

c에서는 누가 그것을 수행하는지 논의합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분석합니다. 서론, 명령형 분위기, 열정의

분위기, 그리고 누가 노래하고 누가 연주하는지를 통해 제가 논의할 세 가지를 통해 우리를 안내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선 명령형 분위기는 전형적인 독일식이다. 모든 것이 분석됩니다.

의 정의로 알려진 것, 그리고 우리가 코호트라고 알려진 것. 그래서 그는 당신이 이것을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며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 사람은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로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문을 읽을 때 시편의 내용을 정말로 이해하지만 그 영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어떤 열정이나 믿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놀랍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서문을 보면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CS Lewis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신은 자기애적인 존재일까요? 그는 불안한가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 하나요? 나는 결코 당신에게 나를 칭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은 내려다 볼 것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걸로 뭘 만드나요? 이것은 정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루이스를 화나게 했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도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형적인 CS Lewis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반성할 것이다.

그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칭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술 작품을 가져갈 것이고 우리는 예술 작품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술 작품을 칭찬하는 것이 왜 전적으로 적절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예술 작품을 칭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요?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작은 성공회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고 적합합니다.

루이스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건 그렇고, 그는 성공회 교회에서 정경이되었습니다. 현재 성공회 교회에는 일요일 전체가 CS Lewis에게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루이스 자신의 말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림이 훌륭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림이 감탄할 가치가 있거나 요구하는 의미는 감탄이 그림에 대한 올바르게 적절하고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유료 감탄은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감각하며 큰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에 실제로 완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58페이지). 그런 다음 루이스는 예술과 자연의 대상을 존경하라는 요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구로 이동합니다. 그는 감탄할 대상, 원한다면 감상할 대상, 단순히 깨어 있다는 것, 현실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경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실제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진정한 우정을 알지도 못하고, 책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불에 닿는 아침 공기의

감촉을 즐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희미한 모습을 느껴본 적도 없는 음치들의 불완전하고 불구가 된 삶.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루이스의 입장에서 아름답고 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나는 헐리우드 스타, 간음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지루하지만 성자에게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명령의 이러한 세부 사항을 숙고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95편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을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음악과 노래로 그를 찬양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봉우리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느니라

자, 엎드려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 떼이니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맛사 므 리바 에 가서 하나님을 의심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던 광야 맛사 날에 너희는 므리바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했다. 마음이 빛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즉,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므리바 나 맛사, 혹은 어려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비통해하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찬양하라는 부르심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편 95편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회중에서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칭찬 없이는 결코 애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찬송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형식비평적 접근과 찬송가 모티브에 관한 여섯 번째 세션입니다.